

니카야서 길을 묻다 8. 오늘날 필요한 계(戒)④

소유 따른 이익·쾌락 넘어서라

<잡아함> 제15 '번뇌의 경' (使經)에서 '신가비가출가' (信家非家出家)라는 원문을 만날 수 있다. 우리말로 옮기면, "믿음으로써 집[을 소유하는 생활] (家)에서 집[을 소유하지 않는 곳] (非家)으로 향하여 집을 떠난다"는 뜻이다. 이른바 출가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지점으로써 '집 없는 삶' (非家)이야말로 '출가(出家)'의 참뜻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르면, 불교인의 길을 걷는 사람은 집을 소유하지 않는 삶을 이상으로 삼는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집'이란 그저 살아가는 공간만을 의미하지 않을 것이다. 집은 세속의 일상을 꾸러가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밝혀주는 핵심으로써 요즘의 언어로는 '소유

추구하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탈속의 길을 가고 있으며, 바로 거기에서 오늘날에 필요한 계(戒)가 필요한 이유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고타마 신타르타가 부처가 된 뒤 곧바로 설법하기를 주저했던 이유를 되살려보자. 욕망을 좋아하고 욕망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이 도를 알기는 어렵다는 진단, 혹 안다고 하더라도 실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 마치 그것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길이라는 비유를 생각해보면, 성스러움의 추구는 지속적인 노력과 튼튼한 결심을 필요로 한다는 요구를 만나게 된다. 계(戒)가 필요한 지점이다.

한자어 '계(戒)'는 <설문해자(說文解字)>의 설명에 따르면 '손에 찰을 옮겨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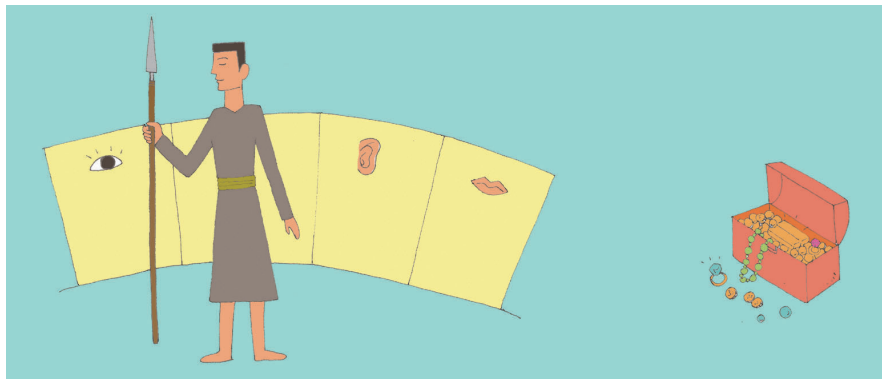


그림 · 나은영

에 기대어 이익과 쾌락 추구를 선택하는 길'을 대표하는 개념이 바로 '집'일 것이다. 따라서 소유에 기대어 이익과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세속의 길이라고 부른다면, 이익과 쾌락의 길을 넘어서서 사람과 세상의 진실을 추구하는 삶을 탈속의 길이라 부를 수 있다. 그러므로 집을 소유하여 이익과 쾌락을 무한정 누리려는 행위'가 세속적이기 때문에 그 집이 도심 한가운데 있던 산속 저 너머에 있던 공간의 위치가 세속과 탈속의 경계를 처음부터 나누어주지 않는다. 앞에서 살펴본 <잡아함>의 메시지는 '성스러운 공간'이란 그 어떤 꽃말을 세우는 행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집을 소유하지 않는 삶의 길을 지향하는 실천에서 마련된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이익과 쾌락만을 추구하는 일상이라면 그것은 세속적이며 성스럽지 못하다'는 말을 덧붙여,

이 생각에 동의한다면, "이익과 쾌락의 맛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일상에서 이들을 넘어서는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찾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행위"를 성스럽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자신의 일상이 이익과 쾌락에만 빠져 있지 않도록 쟁겨서 더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그 무엇을

고 있는 병사의 모습'을 형용한 것이다. 즉, 장으로 무장한 병사가 적으로부터 성문(城門)을 지키는 행위가 바로 계(戒)이다. 감각대상이 자신의 마음으로 들어오는 길목, '눈, 귀, 코, 혀, 몸, 생각'이라는 '여섯 가지 감각기관' (六根)의 지킴이 바로 계(戒)의 의미이다. 그러므로 계(戒)는 내 마음이 무엇을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냄새 맡고 있으며, 맛보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또 내 몸에 접촉되는 대상과 내 생각의 대상들이 어떻게 마음을 동요시켜 욕망과 감정 등이 발생되는지를 지켜보도록 이끈다. 그러므로 계(戒)는 감각기관이 감각대상을 만나는 그 지점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단속하고 제어하고 다스리는 일인 것이다. 따라서 계학(戒學)은 몇 번의 지킴, 한때의 실천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 규칙이자 원칙을 바로 세움이다. 그것은 소유에 기댄 이익과 쾌락을 더 많이 차지하고 싶은 마음을 넘어서서 성스러움을 추구하는 길을 지속해나가기 위한 튼튼한 지킴의 길인 것이다.

김준호(불교철학/울산대 연구교수)



2004년 8월 창단한 JnB. 창단 이후 현재까지 100여 명의 단원을 배출했다. 20~30대 청년불자로 구성된 JnB는 군법당·복지관·교도소 등에서 음성공양 봉사를 하며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알리는 데 노력하고 있다.

道伴의 향기

진각청년 보컬밴드 JnB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불교가 좋아 신생활을 이어오던 20대 청년불자들이 '노래'라는 공통적인 취미 아래 뭉쳤다. 사찰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동호회가 합창단이었지만 대부분 40~60대로 구성되어 젊은이들이 다가가기에는 낯설었고, 당시의 찬불가 역시 중장년층 기호에 맞춰진 것들이 많아 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령대가 맞는 청년회마저도 세대별 친목위주로 운영돼 개인적인 취미를 함께하기 어려웠던 터라 노래를 사랑한 청년불자들은 결국 뜻을 모아 진각청년 보컬밴드 'JnB(Jingak New buddhist vocal Band)'를 만들었다.

창단 후 첫 무대는 논산 육군훈련소 법당이었다. JnB 단원들은 처음부터 기존 사찰합창단과는 다른 젊은 감각으로 노래하는 목표로 모였기에 대중가요나 대중음악형태의 찬불가를 주로 선보였다. 게다가 20대 초중반 남녀들로 구성돼 있어 장병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 이후로 JnB는 매년 10여회가 넘는 기획·초청공연과 위문공연을 펼쳐오고 있다.

대중음악 형태의 찬불가 선보여

2004년 8월 22일 결성된 JnB. 현재 진각종 서울교구의 문화신행단체이자 청년예술단체로서 청년불자들의 기호에 맞는 새로운 음악 만들기과 대중교포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노래동호회'다.

물론 JnB 이전에 '에밀레' 등의 몇몇 노래동아리가 있었으나 전문지도자가 없어 오래가지 못하고 없어지는 일이 다반사였다. 노래를 좋아하는 젊은이들

“우리는 절집 아이돌”...

2004년 창단 후 100여 명 거쳐가 '노래' 하나로 청년불자 한데 뭉쳐 체계적 교육 아래 '음성공양' 봉사 "대중적 접근 위해 주류 문화 탈피"

의 열정을 체계적으로 이끌어주지 못한 게 주된 원인이었다. 그래서 JnB 창단멤버들은 기존 노래동아리들의 실패사례를 참고하고, 불교음악창단 LMB 싱어즈(Love Music Buddhism singers) 김양희 소프라노의 도움을 받아 성장했다. 그렇게 지금까지 JnB를 거쳐 간 단원만 100여 명이다. 현역단원도 20명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사실 노래를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청년불자들이 모였지만 3~4년 정도는 많이 고생했습니다. 심지어 2기 단원은 두 명밖에 받지 못해서 걱정도 많았어요. 그래서 다른 동아리보다 더욱 체계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음악적 장르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고, 과감하게 합창 위주의 패턴을 벗어나 대중적으로 접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덕분에 JnB 이름을 많이 알릴 수 있었고, 최근에는 진선여중 댄스동아리나 동덕여대 실용음악과 밴드와 협연도 했습니다."

단원으로 활동을 시작해 현재 지도를 맡고 있는 법정 구장현 지휘자는 JnB의 산 증인이다. 그는 단체의 성장 배경을 '체계적 교육'으로 꼽았다. 전문단체는 아니기에 가볍게 시작했지만 누군가에게 공연을 보여줘야 하는 입장에서 '대중'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13년째 꾸준한 활동을 이어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기도 하다.

JnB 단원 자격은 20~40세 정도의 불자이지만 20

대 단원이 가장 많은 정도로 젊은 편이다. 7기 단원으로 현재 단장을 맡고 있는 오미연 씨가 30대 초반임을 감안하면 불교계에서는 보기 드문 젊은 동호회다. 그렇다면 단원들은 JnB를 어떻게 알고 가입하게 된 걸까?

김도엽 총무(29)는 "지방에서 절을 다니다 회당문화축제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다. 행사가 끝나고 뒤 돌아갈 때 JnB 단원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마치 '절집 선가대' 같은 느낌이 독특했다"며 "그 인연으로 자성학교 보조교사로 활동하고,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정식단원으로 활동하게 됐다"고 밝혔다.

올해 새로 입단한 이준영 단원(20)은 "고등학교 때 비로자나청소년협회 선지식캠프에 참여했다가 JnB를 알게 됐다. 평소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해 상경하게 된 뒤 입단했다"며 "모든 단원들이 열정을 갖고 활동하는 모습에 감동받았다. 개인적으로 오래오래 활동하고 싶다"고 말했다.

"봉사는 마음으로 음성공양"

앞서 밝힌 것처럼 JnB의 운영은 매우 체계적이다. 우선 입단을 위한 오디션은 공중과 방송의 그것과 같은 긴장감을 느끼게 한다. 심인당 강당에서 최고의 음향시설을 갖추고 실제 가수 무대처럼 꾸민 뒤 오디션을 진행한다. 엄격한 심사를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노래를 준비하는 이의 마음과 과정을 존중해주는 것이다. 오디션 전에 입단희망자에게 겁을 주지 않지만 사실 입단에 노래실력은 중요치 않은 요소다.

오디션을 마치고 정식으로 입단하면 기존 단원과 멘토·멘티를 정한다. 선배인 멘토들은 신입단원들의 곡 선정과 가이드 등을 도우며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버팀목 역할을 맡는다. 그래서 단원들은 각 기수별로 나누지만 서로 존중하는 도반이기에 유대관

사찰고급연등·자동승하강시설

2016연등특별공급(한정분)

모든 연등 8cm 기준 전국 어느 상점에서나 3,000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자동승하강장치 설명 |

자동승하강장치란 기존 또는 신축법당에 고정으로 설치된 연등에 맞게 프레임 제작하여 모터에 연결해 상하로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 자동승하강장치의 장점 |

- 1. 발원등표 교체가 편리합니다.
2. 법당이 넓고 화려해보입니다.
3. 법당내 구조와 면적에 비례하여 프레임 제작하기 때문에 연등의 오와 열 정렬이 확실합니다.
4.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사후관리를 책임 집니다.
5. 아무나 조작할수 없도록 스위치에 잠금장치가 있으며 안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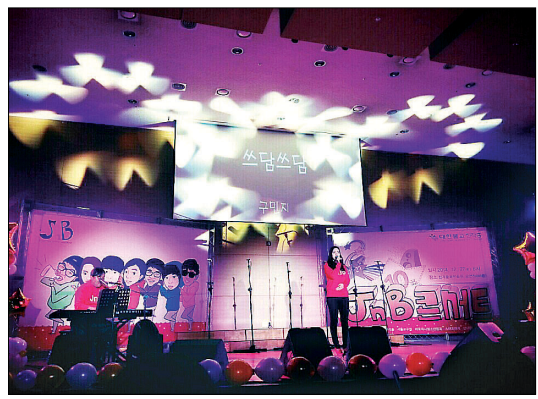
Product showcase for lanterns including categories like '가야자비연등', '차귀이', '설화등', '고급 칼라연등', '가야 궁단등', '비닐만일등', and '연등 및 각종 전선, LED 전구'. Includes prices and contact information.



불교장엄용품전문 가야기획

※ 가까운 유명 불교용품점에서 상담하십시오.

佛音으로 소통하는 新 문화포교



2014년 열린 JnB콘서트 현장 모습.



여의나루역 광장서 버스킹하고 있는 JnB.



2년마다 열리는 JnB콘서트는 많은 불자들이 기다리는 문화포교 현장이기도 하다.

계 역시 상당히 끈끈하다. 아울러 구장현 지휘자는 주중에 단원들의 개인 연습을, 주말에 중창 연습을 지도하고 있다. 단원들보다 더 큰 지도자의 열정이 돋보인다.

구장현 지휘자는 “신입단원은 입단 후 한 달간 따로 연습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각자에게 맞는 음역대와 음색을 알아보고, 모두 어우러질 수 있는 곡을 찾는다”며 “프로 가수처럼 만들어 줄 수는 없어도 한 곡만큼은 가수처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지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JnB는 많은 공연을 하는 단체이지만 기본적으로 ‘봉사단체’ 성격이 짙다. 그래서 공연을 할 때도 소정의 수고비 외에 공연비 명목의 돈을 받지 않는다. 주로 회비와 중단 지원으로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다. 그럼에도 자체적으로 공연 장비를 마련하고, 군법당이나 복지관, 종합학교 등에서 다양한 음성공양을 펼치고 있다. 이 같은 마음 씀씀이 덕분일까, 말진 않지만 이제는 조금씩 팬도 생겨나고 있는 추세다.

오미연 단장(33)은 “단원들의 노래실력이 나날이 좋아지고 있다. 게다가 JnB의 활동을 단순한 노래 이상으로 바라봐주시는 분들이 많아졌다. 점차 폭넓은 활동을 하게 되면서 단원들의 신심과 소신이 더욱 깊어질 수 있었다”고 자부심을 드러냈다.

JnB의 특색은 봉사 외에도 노래와 함께 신행을 기본 바탕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자칫 노래에만 집중해 신행활동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한다. 부처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불자들이기에 아무리 바쁘더라도 틈틈이 신행생활을 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교리가 청년불자들의 생활 속에 자리 잡지 못하면 노래는 단순한 ‘소리’로 전락하고 말기 때문이다. 이 같은 꾸준한 신행 덕분에 청년불자들은 노래를 연습하면서 교리를 학습하기도 한다.

노래 외에도 신행생활은 기본 버스킹·풍경소리 앨범 녹음 등 전법활동에도 열정 가득 쏟아내 “타종교와의 교류도 꿈꿔 봐요”

구장현 지휘자는 “노래를 통해 슬로파르트를 연습하면 자기성찰을 배우고, 중창을 연습하면 인연을 배운다. 세상 모든 것이 다 연결돼 있다는 연기법을 노래연습에서 느끼는 일이 많다”며 “자기만 잘하고 돋보이려는 친구들도 이곳에서 겪는 대인관계를 통해 새로운 의미를 배워간다”고 설명했다.

“간헐 신행서 벗어나 전법”

JnB는 창단 후 지속적으로 다른 음악단체와의 교류를 위해 노력해왔다. 폭 넓은 전법을 펼치기 위한 이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불교계에는 인프라가 적었고, 타종교와는 접근 자체가 쉽지 않았다. 불교계에는 그나마 조계사 소리마루합창단이나 청량사 어린이·청소년밴드가 있었지만 JnB 단원들과는 연령대 차이가 컸다.

김도엽 총무는 “불교계에 JnB와 비슷한 단체가 없다. 비록 나이 차이는 있어도 소리마루합창단이나 청량사 밴드와 연합공연 등을 하기 위해 알아봤지만 서로 스케줄이 맞지 않아 무산되는 일도 있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럼에도 JnB는 길거리에서 다양한 버스킹 공연을 하고, 몇몇 단원은 좋은벗풍경소리 앨범에 보컬로 참여하는 등 전법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단원들에게는 자신감을 불어넣는 좋은 연습이 되고, 더 넓게는 많은 단체 혹은 타종교와의 음악적 교류로 이

어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구장현 지휘자는 “JnB와 같은 단체들은 포교 연구과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대사회적으로 소통하고 구성원들이 만족하는 신행조직이 보다 많이 구현되길 바란다”면서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전법이기에 때문에 전법하지 않는 불교는 죽은 불교라고 생각한다. 문화시대에 교리를 잘 구현할 수 있는 단체가 늘어나고, 잘 이끌어주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마음가짐에서 JnB는 ‘부처님 말씀을 담은 음악’을 만드는 게 목표다. 아직까지 작곡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연동이나 좋은벗풍경소리가 발표하는 곡을 주로 사용해왔지만 앞으로는 주도적으로 곡을 만들어낼 계획이다. 또한 SNS를 통해 노래실력뿐만 아니라 연습하는 과정을 알려 새로운 신행조직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힘을 쏟을 예정이다. 이런 일환으로 오는 4월 2일 홍대 스테이리온에서 JnB 콘서트도 개최한다. 여기에는 그동안 노력해온 음성포교 활동을 재조명하고, 다양한 단체와 협연을 하면서 청년불교음악 축제도 자리매김하겠다는 포부도 담았다.

오미연 단장은 “JnB를 통해 단순히 노래하고 공연하는 것을 넘어 음성포교활동의 진정한 의미를 찾게 됐다. 이번 콘서트는 지금까지 해왔던 여느 공연보다 가장 수준 높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단원과 관객 모두 화합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젊음이 아름다운 이유는 무한한 가능성과 끝없는 도전에 꿈꿀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가, 그렇기에 젊은이만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죄악은 평범해지는 것이라고, 새로운 도전과 포기를 모르는 젊은 열정은 오늘도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사자후로 거듭나기 위해 타마에 힘쓴다.

글=윤호성 기자·사진=노덕현 기자

전법일기

처녀 총각 인연 맺어주기

지금껏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참으로 많은 사연들을 들었다. 그래서 나는 혼자 아니었던 것이다. 늘 혼자라고 생각해 왔는데, 이런저런 인연들로 얽혀 있었다.

누구나 제각기 자신에게 맞는 옷을 입고 살아야 한다. 또한 제각기 어울리는 환경에서 살아가야 편하다. 그런데 그것 또한 쉽지가 않은 일이다. 맑고 깨끗한 물에 서만 사는 쉬리가 있는가 하면, 좀 심하게 과장해서 썩은 음식이나 오물에서 살아야 제대로 사는 구더기도 있다. 우리네 인생도 자연현상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 제각기 자신에게 맞는 옷을 입고 살아가야 일신이 편안한 것이다.

오래전에 일 때문에 관공서에 갔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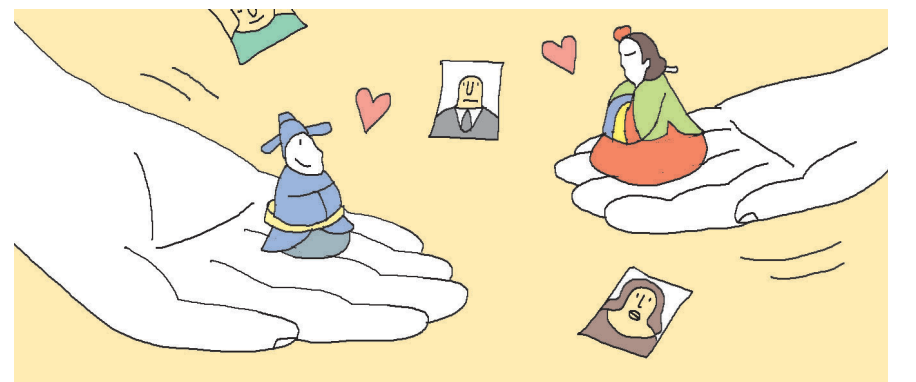
안 될까요.”

조금은 황당하기도 했다. 명절 때문에 결혼이 급하다니... 불교에서 말하는 부부의 연은 1겁의 연인데 1겁이란 물방울이 하나씩 떨어져서 바위를 뚫을 때까지 걸리는 무한대의 시간이니, 그만큼 소중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것도 인연이기에 증매에 나서기로 했다. 다행히 카페에 가입된 한 여성분이 호감을 보였다.

“스님, 저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나이도 맞고 성실하신 분 같으니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오히려 이번 반응에 증매를 서는 본인이 당황했다. 보통 청춘 남녀를 만나면 평생의 인연을 맺기 위해서는 너무 쉽게 상



그림·박구원

능력 있고 성실한 한 직원을 알게 되었다. 그 청년은 젊을 때는 공부만 하다가 혼기를 놓쳐 결혼할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손자를 보는 것이 소원이라며 걱정하고 있었다.

“아, 이런 처녀 총각들의 인연을 맺어주는 것도 부처님 공덕이겠구나. 내가 가진 역량이 이 분야에 회향해야겠다.”

이것이 시초가 되어 청춘남녀를 엮어주기 시작했다. 처음에 증매를 서기는 어려웠다. 가장 먼저 지역신문을 찾아가 취지를 설명했다. 지역신문의 광고를 보고 한 두명씩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이를 바탕으로 2005년에는 인터넷 카페 ‘따뜻한 만남’을 개설하고 정기적으로 만남법회를 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주 단순하게 사람들의 고민을 해결하려고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2200여 쌍이 결혼하게 됐다.

이 2200여 쌍 중에는 재미있는 사연도 많다. 한번은 추석 명절을 2주가량 앞두고 한 청년이 찾아왔다.

“스님, 큰일입니다. 부모님에게 결혼할 여자가 있다고 했는데, 이번 추석에는 꼭 결혼할 여자를 데려가리라 생각했는데...결국 이렇게 혼자네요...스님이 증매로 유명하시다면서요. 저 좀 도와주시면

대방을 판단하지 말고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며 살펴보고 권유한다. 오히려 너무 빠른 만남에 조심스럽게 만나야 한다고 당부까지 하게 됐다.

“그렇게 두 분이 만나고 싶으시면 일요일에 열리는 산사음악회에 나오세요. 그러면 그곳에서 두 분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옥천사에서는 계절마다 사찰을 개방하고 있다. 일요일마다 종교의 벽을 허물고 성당이고 교회고 함께 어울려 즐겁게 종교활동을 하고 있다. 산사음악회에서 만난 두 남자는 결국 연애를 시작했고, 6개월 간의 연애 끝에 결혼에 골인하게 됐다. 이 두 사람이 사찰 법회에 더욱 열심히 나오게 됐음은 물론이다.

인연을 만났다면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이고, 아직 만나지 못했어도 축복받은 사람이다. 최고의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죽음을 앞두고 후회가 없도록 지금 열심히 사랑하고 지금 바로 사랑한다고 말해 보길 바란다.

혜철 스님(옥천 대성사 주지)

JJUN Heating System Module

“**전** 난방” 난방시스템 난방비(가스) **최대 30% 절감** ↓

난방필름 전기판넬 대비 **50% ↓**

2013년 국내 최초 바닥접착식모듈건식 온수난방시스템개발!!!

스님, 불자님 직접 온수 난방을 시공하세요.

대한민국 온돌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온 건식 온수난방시스템의 종결자!!

국내 유일 D.I.Y 모듈형 접착식 건식온수난방 SYSTEM

특허청 KIBO 기술보증기금 인증 벤처기업

특허등록(특허제 10-1267515호) ISO 90001:2008 인증업체 ISO 14001:2004 인증업체

- 01 업계최초 바닥 접착방식 적용
- 02 에너지 소비효율 최고 수준
- 03 공기순환형 구조로 열섬현상 제거
- 04 D.I.Y 시공 가능
- 05 저온수(45°C ~ 50°C) 난방 가능

설치 장소

보일러란 있으면 어디든지 시공 가능

- 적용보일러 : 가스, 기름, 전기, 화목, 공기열, 지열, 연탄 등
- 시공 대상 : 사찰 및 임차 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숙박시설

■ 지역 대리점 [10월 현재]

서울 : 010-5097-8291 부산 : 010-2310-0404
 인천 : 010-5759-8804 광주 : 010-9807-4862
 대구 : 010-9183-9729 대전 : 010-6890-0365
 수원 : 010-7526-3300 여수 : 010-3612-7784
 안산 : 010-2487-3393 울산 : 010-6610-2337
 오산 : 010-2043-4336 화성 : 010-3168-9250
 기흥 : 010-8378-3375 용인 : 010-9807-4862
 광주 : 010-6890-0365 여수 : 010-3612-7784
 안산 : 010-2487-3393 울산 : 010-6610-2337
 김천 : 010-9091-4583 대구 : 010-3259-3520
 울산 : 010-4597-5577 진주 : 010-3583-7139
 양산 : 010-6294-6126 통영 : 010-3592-2447
 고성 : 010-4578-0961

www.jjunheating.co.kr

제품구입 및 A/S는 전국 어디서나 무료통화
080-254-9113
H-P 010-2323-9068
 본사 : 경기도 수원시 정안로 61(영화동)

사찰 연등 및 전선 [별당용]

초심미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동간격·규격함조

설치가 편리한 고리형 후크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고주구 12E 3구, 4구 인지구 26E 4구, 5구

연등(등표)사다리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전선 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공단연등(고리용)

노랑(오렌지) 진분홍 연분홍 백색 금색

▶연등규격 : 4cm, 6cm, 7cm, 8cm, 10.5cm, 13cm, 20cm, 30cm

제등영점 용품

일사형 S형 T보리형 LEDH형 LEDL형 안전지 초

▶방수, 탐돌이, 각종 형상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